

2008년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2월25일부터 11월23일까지 100명 대상 7회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룡)는 21세기 디지털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활용과 농장경영프로그램 이용 등 경영능력을 갖춘 신지식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기수별 15명씩 초급, 중급 과정으로 진행하며 단순히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거나 영농에 꼭 필요한 자료검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실질적으로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2월25일부터 11월28일까지 총7회에 걸쳐 100명을 대상으로 1회당 15명 내외로 교육을 하게 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10명 이상의 단체는 수시로 반을 개설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시

기에 실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지난해 초급반 교육을 수료하고 이번엔 중급과정을 신청한 농가는 "이번 교육으로 평소 컴퓨터를 두려워만 했는데 컴퓨터와 친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급반까지 수강하여 농장 경영을 새롭게 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정보화교육은 단순히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거나 농가경영 관리프로그램을 보급 실용적인 농장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담당(031-820-5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1세기 디지털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활용과 농장경영프로그램 이용 등 경영능력을 갖춘 신지식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행복을 나르는 파랑새 월별활동 추진

연천군, 2008 연천사랑 가족봉사단 발대식

연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2월14일부터 센터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연천사랑 가족봉사단'의 새식구를 모집해 전곡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월23일 '2008 연천사랑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연천사랑 가족봉사단은 주5일 근무제 또는 월2회 학교 휴교제로 인한 여가활용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학습 및 체험을 연계한 자원

봉사프로그램을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랑의 집장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희망찬 2008년은 '행복을 나르는 파랑새'라는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계획·운영하기 위해 15가족 60명이 발대식에 함께 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업, 자원봉사'를 함께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연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연천군민 또는 연천군 소재 직장인으로 초등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 구성 가족으로 월1회(매월 4째 토요일)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세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연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yevvi@hanmail.net)로 접수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에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문화 가정과 가족봉사단 결연 캠프, 농촌일손 돕기, 사랑의 연탄배달 등 '행복을 나르는 파랑새'를 주제로 월별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연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연천군민 또는 연천군 소재 직장인으로 초등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 구성 가족으로 월1회(매월 4째 토요일)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세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연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yevvi@hanmail.net)로 접수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2월14일부터 센터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연천사랑 가족봉사단'의 새식구를 모집해 전곡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월23일 '2008 연천사랑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토뉴스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 성금 전달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 양주시청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지부장 김승수)는 2월21일 1천만원을 양주시에 전달했다.



25사단 부사관단 학사학위 영예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얻어낸 값진 결실



육군 25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단 20명이 사단과 학·군 제휴를 맺고 있는 서정대학교에서 2월22일 학사학위를 받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육군 25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단 20명이 사단과 학·군 제휴를 맺고 있는 서정대학교에서 2월22일 학사학위를 받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들 20명은 주간에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야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경야독(晝耕夜讀)끝에 영예의 졸업식을 실시했다.

수십명의 장병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지휘자로서 이들은 전방사단으로서의 잦은 훈련을 소화해 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틈틈이 학업을 충실히 해온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더욱 의미 있는 졸업식이 되었다.

특히, 영예로운 졸업을 맞이한 사단 주임원사 최홍식(55세)은 2000년 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대학까지 진학하였고 바쁜 부대 생활 속에서도 전체평점 4.5만점에 4.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여 단원 화제가 되었으며, 이들 모두 평소 부대에서는 믿음직한 군인으로, 가정에서는 자상한 가정으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1인 3역을 완벽히 소화함으로써 주위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사단 주임원사 최홍식 원사는 "평소 배우지 못한 아쉬움과 배움을 위한 열정을 품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꿈에 그리던 학사모를 쓰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07학년부터 재학중인 정옥 권 하사(23세)는 "사단에서 이런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해주어 사회에서 다하지 못한 학문의 꿈을 여기서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군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25사단에서는 06년부터 서정대학교와 학·군 제휴를 맺어 군 간부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왔으며, 매년 약 30여명이 미래 군의 주역이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과 구석기 축제 홍보 나선다

연천군 2008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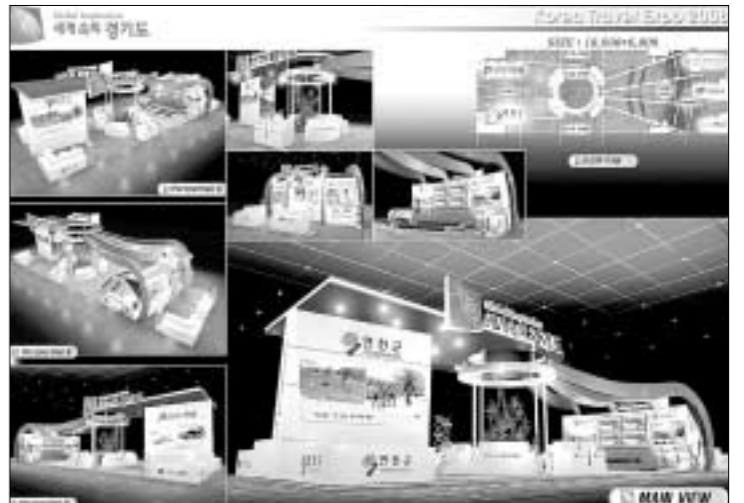
연천군은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경기도 통합홍보관으로 참가해 연천관광 및 문화유적을 적극 홍보하고, 오는 5월2일부터 개최하는 제16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를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태평양홀)에서 개최되는 2008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BS 한국방송이 주최하고 (주)코엑스가 주관한다.

연천군은 경기도 통합홍보관 12개 부스 중 2개 규모의 홍보관을 디자인해 현대적인 분위기와 접목한 연천군 관광자원 홍보를 연출하고 연천군과 구석기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 상영, 지역특산물 전시홍보, 홍보관 내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또한 구석기인 동상 퍼포먼스, 고풍이·미룡이 캐릭터탈 퍼포먼스, 석기제작 시연, 선사유적지 및 구석기축제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 나라 여행박람회 첫날인 27일, 김규배 연천군수는 KBS 생방송 촬영 중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제16회를 맞은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연천군은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경기도 통합홍보관으로 참가해 연천관광 및 문화유적을 적극 홍보하고, 오는 5월2일부터 개최하는 제16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를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에 이어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4월에 개최하여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및 가족들의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2008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계속되는 3월 1일까지 흥미와 재미 제공을 통한 관광객이 표출될 수 있도록 축제 경쟁력을 강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북부 최대의 종합수변관광지로 추진해 온, 전곡리

선사유적지 일원의 한탄강관광지가 4월에 개장하여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및 가족들의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건설공사 부실척결 위해 실무교육 가져

양주시 시설직 공사담당 공무원 70여명 대상

양주시는 건설공사 부실척결을 위하여 부실 공사방지 세부계획 및 지침을 전 직원에게 시달하고, 지난 21일 총무국장 및 시설직 공사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육을 가졌다.

주요골자로는 모든 건설공사현장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눈이 상주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 카메라 현장설치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과 민간기술자문단 구성을 통한 고품질 건설공사 실현 ▶계약 전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건설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공정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주시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공사가 포착될 경우 지체 없이 일일감사를 시행하여 공무원의 공사감독 임무 해태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는 물론 부실업체 및 관련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여, 입찰시

불이익 등의 법적조치를 강행함으로써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관공공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시책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모두가 의지를 갖고,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는 건설공사 부실척결을 위하여 부실 공사방지 세부계획 및 지침을 전 직원에게 시달하고, 지난 21일 총무국장 및 시설직 공사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육을 가졌다.

'웃이야! 올해 명품연천교육 대박났네!'

연천교육청 정월 대보름맞이 웃놀이

경기도연천교육청은 2월21일 오후4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월 대보름맞이 척사대회(웃놀이)를 열었다.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 민속놀이인 척사대회(웃놀이)를 통하여 소속 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민속놀이를 체험을 통한 조상들의 슬기와 얼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며, 한마당 민속놀이로 직원들간의 화합된 놀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양기석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전 직원들이 큰 희망과 꿈을 갖고 명품연천교육 실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의 고유 전

통과 민속놀이를 잊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교육자가 해야 할 몫이다. 우리 교육가족의 웃음과 건강이 곧 연천교육의 건강이다. 희망찬 연천교육을 위하여 한창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49명 전직원이 4인 1조 단체전으로 출전하여 대전 추첨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쫓고 쫓기는 웃놀이의 묘미에 웃음과 환호성이 터졌다.

이번 대회에서 꼴찌를 한 중등교육팀의 윤경진 주사는 "전 직원이 다 어울려 웃놀이를 하니 정말 재미있다. 이겨도 즐겁고 져도 즐거운 놀이가 우리 전봉놀이인 것 같다. 일에 파묻혀 사는 교육청에서 잠시

전 직원이 웃으며 함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화합을 바탕으로 명품연천교육을 위해 한몫을 담당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현장방문



양주시의회는 제171회 임시회 기간중 2월25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나섰다.

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는 제171회 임시회 기간중 2월25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흥면 부곡리 청향사(최영장군 국당)로 주민들이 소음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이날 장재홍 의원은 "청향사 최영장군 국당은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고 농지를 전용해 민불상을 진열하는 등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부곡리 646번지 일대의 가구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편에 대해서는 단 한가구가 해당되는 경우라도 예외 없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주민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참석관 관계공무원들에게 신속하고 근복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정월대보름맞이 고유민속놀이 한마당 성황

2월21일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임종민 양주시청, 원대식 의회의장, 박성복 문화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대학 민속놀이, 체험마당, 브람캐기 등 정월대보름맞이 고유민속놀이 한마당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데 읍면동 대학 민속놀이, 체험마당, 브람캐기 등 정월대보름맞이 고유민속놀이 한마당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첨단교통체계 최종보고회 가져

양주시는 2월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첨단 교통 체계 도입에 따른 양주시 첨단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에는 기본계획부문 ▶양주시 ITS 기본방향 및 아키텍처 ▶ITS 단계별 추진전략 ▶교통

정보센터 운영·유지 및 재원 조달방안 기본설계부문 ▶교통관리전략 ▶현장시스템 설계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설계 등에 대해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센터 김남선 박사가,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에스컨자인 이돈주 이사가 실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